

소양8교 개설 구간·도로 폭 주목

【춘천】속보=춘천시가 추진 중인 우두동~동면 연결 ‘소양8교’(본보 2017년 12월22일자 9면 보도)의 정확한 개설 구간과 도로 폭을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강북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기회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는 우두택지개발 등 신규 택지 조성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신사우동과 동면 장학리를 연결하는 이 사업의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올해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설 예정구간은 신사우동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강원

우두동~동면 소양8교 도시계획도로 구간



2020년 착공 ... 강남·강북 균형발전 효과 기대 시 “올해 타당성 조사 도로 폭·보상 규모 확정”

명진학교 앞에서부터 동면 장학리 해운채아파트 인근 춘천 내부순환도로 연결 삼거리까지의 1.5km다.

이 중 교량 구간은 600m로 기존 소양2교(510m)보다 90

m가 길다. 그동안 개설됐거나 공사 중인 소양강 구간 교량 중에 가장 길다.

도시계획상 도로 폭은 35~40m로 6차로까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진행되는 타당성 조

사에서 인구 추이 등을 분석해 도로 폭과 보상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9년 실시설계 및 보상,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준공 이후에는 인근 소양1교를 인도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소양1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면서 출퇴근시간대 차량 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신연균 시 건설국장은 “소양8교의 개설은 신사우동과 동면 장학리, 후평동 일대 개발 촉진 효과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평창 지방도·하천정비예산 388억 확보

각종 대규모 사업 연내 완료

【평창】도가 추진하는 평창 지방도로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이 확보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현창 도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으로 388억원이 확보됐다. 2006년부터 추진 중인 대화면 상안미리~용평 백옥포리를 잇는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632억원 중 지난해까지 542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 90억원 예산이 확보돼 연내 완공이 가능해졌다. 2010년 착수한 문곡~창리(밤재) 지방도사업은 733억원을 투자해 13.2km 확·포장과 터널 890m 교량 10개소를 공사 중이며 올해 100억원을 집중투자해 위험구간부터 부분 개통할 계획이다.

박현창 도의원은 “장기계속 사업의 준공을 앞당기고 주민 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평창군 계약심사 실시 지난해 11억 예산절감

【평창】평창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11억7,000만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본청·사업소·읍면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91건 326억원, 용역 85건 140억원, 물품구매 41건 41억원, 설계변경 4건 73억원 등 221건 58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11억7,000만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군은 적정원가 미반영으로 과소 설계된 경우 이를 증액 조정해 시공품질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기자

‘헐값’에 무너지는 안전... 적정공사비

2018 戊戌年

안전한 건설!

안전한 대한민국!

‘사고 공화국’ 오명 뒤에는
제값 못받는 ‘건설의 눈물’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모두의 생존 위한 필수조건
제대로된 투자 뒷받침돼야

무술년(戊戌年) 대한민국 건설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해 대한민국 건설은 그야말로 체념과 좌절의 기록이었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을 필요악으로 폄하했고,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을 무기관으로 몰아붙였다. ▶ 관련기사 234면

곳간이 텅텅 비어버린 탓에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세금 폐막은 과렴치한으로 낙인 찍었고, 손바닥 뒤집기 식 탈원전 정책은 앞만 보고 달려온 200만 건설인들을 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판치는 불량 건설은 자존감으로 버티온 대한민국 건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불량 건설은 지난해 포항 지진과 있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타워크레인회제 사고 등으로 인해 그 민낯이 드러났다.

부실한 품질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의 불량 건설이 손가락질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안전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불량 건설의 이면에는 ‘헐값 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실사 헐값 공사의 실상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다.

최소한의 공사비만 대고 제 입맛대로 시공

사를 선정하고선 지급 공사비에 비해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찐주(錢主)’들이 그렇다. 찐주들은 싸게 구매하는 걸 진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찐주들이 간과한 게 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과 비용은 비례한다.

국민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면, 또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안전을 위한 적정 수준의 비용이 반영됐는지 따져보는 게 먼저다.

안전사고의 뇌관이 되고 있는 헐값 공사를 퇴출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고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다.

새해 대한민국 건설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이슈가 던져졌다. 분명한 건 적정공사비 확보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박경남기자 knp@

謹賀新年

건설인 여러분! 戊戌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 2018. 1. 4(목) 17:00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신년사

“국민안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건설업의 성장기반 조성 and 균형 발전,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무술년은 건설업계에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회장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19조원에 그쳐 심각한 물량난이 예상되며, 민간건설시장 또한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서도 “발주물량 급감, 덤핑입찰 등으로 어닝쇼크(earning shock)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건설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가 5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이다. 유 회장은 “SOC 투자 축소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안전 보장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근본이 되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이 확대되도록 정책 및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해 ‘건설코리아’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셋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중소업체 간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정책·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건설산업이 기술산업으로

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기술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건설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윤리경영과 새로운 선진 건설문화 정착이다. 유 회장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과 전근대적인 건설문화로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끝으로 “2018년에는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하는 보람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

謹賀新年

2018 戊戌年 (무술년)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회원사에 더욱더 다가가는
시·도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허 승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정 현 태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조 종 수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이 덕 인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이 권 수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정 성 욱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 임 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하 용 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 인 철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윤 현 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세종시회

회장 박 해 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정 대 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김 영 구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배 인 호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상 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이 시 복